

새 책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나쓰메 소세키 지음·장현주 옮김)=일본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작가의 데뷔작이다. 새끼 때 버려져 우연히 중학교 영어 교사인 구사미네 집에 들어가 살게 된 고양이를 1인칭 관찰자로 인간 군상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고양이 눈에 비친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이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의 통찰력을 엿보게 한다. 새움. 1만4800원.



▶물개 할망(오미경 글·이명애 그림)=아이는 물질하러 간 할망을 기다린다. 아이 눈에 할망은 용왕의 딸처럼 크고 강인하지만 할망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늘 걱정이다. 그런 아이가 할망과 함께 바다에 들어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살아온 제주 할망의 삶이다. 작가는 제주 해녀와 아일랜드 물개 설화를 연결해 새 이야기를 내놨다. 책장 곳곳에 시시각각 변하는 제주 바다가 그곳으로 안내한다. 모래알. 1만5000원.



▶블루와 옐로(브리타 테켄트립 지음·김서정 옮김)=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사는 새 '블루'는 날고, 노래하는 것도 있었다. 다른 새들도 블루를 찾지 않는다. 하지만 노란 새 '옐로'는 다르다. 내려앉은 곳마다 초목 이파리가 자라게 하는 옐로는 블루가 마음의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준다. 옐로를 따라 서서히 햇살로 나오는 블루의 변화가 진절의 힘을 보여준다. 봄봄. 1만2000원.



▶사라진 것들의 미래(한진오 지음)=제주 토박이인 작가가 쓴 회고집이다. 그가 나고 자란 '제주'라는 공간에서 제주어를 통해 신화적 상상력을 길어올렸다. 곳을 직접 사사 받고 연구해 온 작가는 제주의 현실을 신화적 문법으로 그렸다. 극심한 난개발로 자연이 파괴되고 거대 자본이 밀려와 몸살을 앓는 제주 섬이 왜 살아나길 바라는 기원이다. 걷는사람. 1만6000원.



▶이낙연은 베타이를 전날 밤에 고른다(양재원 지음)=10년 간 이낙연 전 총리를 보좌해 온 저자가 가까이에서 바라본 정치인 이낙연에 대한 기록이다. "사전에 NY(이낙연)에게 보여주고 검열을 받거나 기획하지 않았다"는 저자는 이 책을 "보좌진 신분에서 처음 시도한 '을'의 반란"으로 봐주길 바란다. 그가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과 사례, 후일담을 엮은 이야기가 정치인 이낙연에 들어다 보게 한다. 1만5500원.



▶의사 윤한덕 1·II(김연옥 지음)=대한민국 응급의료시스템의 기틀을 잡은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이야기다. 26년간 글을 썼고 장인, 명장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 그들이 살아온 과정을 쓰고 있다는 저자는 90여 명을 인터뷰해 윤한덕의 흔적을 기록했다. 홀로 분투하며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매달렸던 의사 윤한덕의 삶이 소설 같은 이야기로 펼쳐진다. 마루기획. 1·II 각각 1만5000원.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선별적 수당 말고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말콤 토리의 '...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기존 노동 정의 확대할 때 고용기회 개선 효과 기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줘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어떤 주장들인지 짐작하겠는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선 안된다는 이유들이 그렇다.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이사로 있는 말콤 토리가 쓴 '왜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할까'는 그같은 반대의 목소리에 답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적합한 복지 유형이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

저자는 기존의 선별적 수당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다.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아 생활기반이 취약하면 자산 조사를 거쳐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형편이 나아져

취업을 하고 일정한 소득을 올리면 수당 규모가 적어지거나 하루 아침에 끊긴다.

그는 이같은 복지를 '찌꺼기'라고 불렀다. 대상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수치심을 갖게 만들고 적지 않은 사기와 범죄를 불러오는 탓이다. 그래서 유급 고용의 개인들이 소득을 올릴 때마다 부당하게 부과되는 세제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수당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했다. 이들 제도를 점진적으로 바꿔간다면 기본소득 시행과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

특히 그는 시간제 고용, 단기 고용 등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소득을 지급해선 안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봤다. 높은 임금의 정규직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노동에 대한 정의를 가족과 공동체 내 돌봄 등 무급 노동까지 포함한 유익한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사람들



이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거나 박봉의 일자리를 좀 더 쉽게 거절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20년대 영국에서는 가족수당이 괴짜나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불황과 실업이 증가하는 시기를 거쳐 1946년이 되자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가족은 수당을 받게 됐다. 기본소득의 앞날도 다르지 않다. 저자는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을 두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점차 '언제'를 물을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안호상 감수, 이영래 옮김. 생각의힘. 1만8500원. 진선희기자

편견 교정하는 안경 쓰고 본 북한 사람들

정병호의 '고난과 웃음의 나라'

기근으로 고난을 겪는 인민들에게 북한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란 구호를 내걸었다. 집단 체조 공연에서 격렬한 동작 탓에 가쁜 숨을 쉬면서도 수천 명 아이들은 계속 웃는다. 2018년 4월 15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분단경계선을 넘는 장면이나 연화장 냉면 발안은 어떤가. 공식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즉흥성과 유머가 있었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정병호 교수의 '고난과 웃음의 나라'는 그 지점에 닿는다. 고난과 웃음을 북한의 핵심적인 문화개념으로 꼽으며 문화인류학자로서 관찰하고 경험한 북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 만들어졌다. 과거의 동질성을 회복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제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자의 시선은 집집마다 걸여두는 '장군님 식솔' 족자에서 평양판 스카이크레슬까지 다다른다. 문화에 공연에서 일상불란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웃음은 정서적 풍요와 소속감에서 온다. 평양 엄마들도 남다른 교육열을 지녔고 지방에 대한 차별은 북한 사람들의 중심지향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의 심리와 문화를 이해하면 왜 핵폭탄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품고 있는지 알게 된다고 했다. 빈한한 사정에도 도움의 손길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퍼져있듯 핵폭탄은 상대를



위협하는 무기를 쥔 채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관철시키려는 생존전략이다.

이즈음 북한 사회는 불평등과 차별의 틈바구니에서 억눌려왔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체제붕괴의 조짐으로 해석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 일상 간의 괴리는 커지고 있지만 둘 모두 현실이고 상호보완하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장비. 1만8000원. 진선희기자

이 책 제주출신 적명 스님 유고집 "들꽃에 팔려 벼랑 구름까 두렵노라"



봉암사 수좌였던 제주출신 적명 스님은 생전에 치열한 수행의 길을 몸소 실천했다. 불광출판사에서 제공한 사진이다.



'있는 것 어느 하나 허상 아님이 있던가? 조그만 들꽃에 팔려 벼랑을 구름까 두렵노라. 오(悟)와 미(迷)가 무슨 상관이던가. 오직 풀린 한길이려니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지이다.' 1982년 1월 18일 시처럼 쓰여진 '한길'중 일부다. 들꽃에 팔려 벼랑을 구름까 염려하는 그의 모습에서 매일같이 행동 하나, 생각 하나에도 의지의 칼날을 세우고 빈틈 하나 허락하지 않았을 자기성찰의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났다.

출가 60여 년동안 선(禪) 수행에 몰두하며 오직 수좌로서 살다 간 봉암사 적명(寂明) 스님(1939-2019). 지난해 12월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에 황망했을 이들을 위해 스님의 구도 여정을 엿볼 수 있는 책 한권이 묶였다. 스님의 일기와 법문 등을 모은 유고집 '수좌 적명'이다.

제주가 고향인 적명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돼 산에 들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지만 신체검사에서 어이없이 떨어졌고 낙방에 대한 오기로 재수 준비에 한창이던 어느날 어린 나이에도 한문에 능하고 불교와 도교에도 깊이를 지닌 친구를 만난다. 부처가 말씀한 진리만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친구의 말이 스님의 가슴에 파고들었고 결국 그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스님은 평생 선방 어른을 위한 대우를 마다하고 수좌로 남기를 고집했다. 일반 대중을 위한 법석(法席)에도 잘 앉지 않았다. '중이 중다워지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 밖에 없다고 여겼던 스님의 언행을 떠올리게 된다.

유고집에 담긴 일기는 70편에 이른다. 1980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가까이 써온 일기에서 가려냈다. 거기엔 빈민하는 평범한 인간의 한쪽에 그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치열한 수행자가 있다. 선방에서 수행자들에게 전했던 짧은 법문에선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을 들려준다. 1989년 월간 '해인'지에 실렸던 인터뷰, 법인 스님의 추모글도 덧붙였다. 불광출판사. 1만4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www.boraflower.com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City Flower 전국 꽃배달 서비스
동·서양난,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 746-0014, H·P 010-3693-5563
꽃보라화원
제주시 신광로8길 3 (제원사거리 위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맞은편 골목)

농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